

# 곡성 위케이션으로 생활인구 정착 시대 연다

첫 ‘청춘작당’서 시작…개인·기업형 투트랙 전략  
234개 기업·1500명 방문…“사람·지역 함께 성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의 위케이션은 화려한 시설이나 대규모 예산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던 청년들의 작은 도전이 오늘의 위케이션을 만들었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활인구 정책으로 성장하고 있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도시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곡성에서 살아가는 ‘청춘작당’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실험이었다.

청춘작당을 통해 모인 청년들은 지역에 정착하며 청년협동조합을 설립했고,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군은 이러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지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잠시 여행을 오는 관광’이 아니라 ‘일하며 머무는 지역’을 만들자는 고민 끝에

2022년부터 위케이션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그 첫 무대가 바로 섬점이야기마을이었다.

한옥의 고즈넉한 풍경과 섬진강의 자연은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낮에는 업무를 수행하고,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농촌을 경험하는 새로운 체류 문화를 만들어갔다.

위케이션 시행 이후 현재까지 234개의 기업에서 1500명의 임직원이 곡성군 찾아 위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아주 큰 규모는 아닐 수 있지만 방문객 수보다 ‘방문방식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군은 이제 위케이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형(B2C)과 기업형(B2B)을 아우르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섬청러스티타운은 개인 여행객과 프리랜서, 디지털노마드 등을 위한 개인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최근 한국동서발전과 삼기러스티타운 위케이션 첫걸음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청

위케이션 거점으로 운영된다. 한옥의 정취와 섬진강의 자연을 배경으로 누구나 일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반면 삼기러스티타운은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기업형 위케이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폐교된 삼기중학교를 활용한 삼기러스티타운은 지난달 위케이션센터 선포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미 한국동서발전(주)이 삼기러스티타운 첫 입주기업으로 기업형 위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세

로운 위케이션 모델을 선보였다. 프로그램 기간에 임직원들은 업무와 함께 마을 환경을 위해 본거지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미 한국동서발전(주)이 삼기러스티타운 첫 입주기업으로 기업형 위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세

인구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대표 지역 혁신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위케이션 정책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 고흥 풍양 파크골프장, 동호인 성지 자리매김

임시개장 후 이용객 3000명 돌파…내달 정식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임시 개장 중인 풍양 파크골프장에 3000여명의 이용객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풍양 파크골프장은 고흥군 최초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이다.

군은 500여명에 이르는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이용할 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을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풍양면과 과역면 두 곳을 동시에 착공했다. 이 가운데 풍양 파크골프장(27홀)은 지난 2월 준공돼 6월 말부터 군민 대상 임시 개장에 들어갔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개장 전인 오전 5시부터 찾아오는 이용객이 있을 만큼 인기가 높다. 다만 하절기 폭염에 따른 운영일정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임시개장 기간 동안 동호인들의 이용 소감과 불편·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설 보관을 마쳤다. 홀별로 마사토를 살포한 뒤 평탄작업을 실시해 코스 수평을 맞추고, 홀컵은 지면보다 1cm 아래로 조절해 경기 여건을 개선했다. 임시로 조성돼 있던 배수로 탓에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구

간 평탄작업도 완료했으며, 27홀 간격마다 안전그물망을 설치해 이용객 만족도와 안전성을 함께 높였다.

부족했던 휴게시설도 보강했다. 물쿨텐트 2동과 경기장 내 대형 파라솔을 설치하고, 이용객들에게 얼음물과 식음료를 제공해 폭염 속 안전한 운동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방문 또는 전화(061-830-4702)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군은 결제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9월 중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정식 개장 이후에는 관의 지역 동호인들도 이용할 수 있어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풍양 파크골프장에서 이용객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청

## 보성행복마루, 도시재생 공간으로 ‘성큼’

주민 역량 강화…뉴딜사업 운영기반 마련 속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최근 보성행복마루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보성행복마루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프로그램은 도시재생대학과 보령·롤러스케이프 강습으로 구성됐다. 보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도시재생대학 23명, 보령 강습 20명, 롤러스케이프 강습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오민근, 조문환 강사를 초청해 총 8회 운

영한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정책 방향, 보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 국내외 도시재생 우수 사례 등이다.

보령과 롤러스케이프 강습은 보성행복마루 내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한다. 전문 강사가 기본자세와 장비 사용법, 안전 수칙, 단계별 실습을 지도한다.

보령 강습은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20회 진행된다. 참여자의 연령과 숙련도를 고려해 교육하며, 수업 전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보성=임태형 기자 ltmh66@

##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글로벌 창작지로 도약

시, 입주 콘텐츠기업 간담회  
애로 청취·발전 방향 등 논의

손훈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장은 최근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서 입주 콘텐츠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콘텐츠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애니메이션 분야 로커스와 스튜디오애니밀, 웹툰 분야 케나즈, 출판 분야 남해의 봄날 등 4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순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클러스터 내 제작공간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에 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기업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기업 대표들은 순천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콘텐츠 제작과 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서 콘텐츠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순천의 주요 경쟁력으로 꼽으며,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과 현장실습, 인턴십, 취업을 연계하는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기업 간 정례적인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 지원 등 협력 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손훈모 시장은 “기업들이 신뢰를 갖고

순천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이를 토대로 연관 기업과 인재들이 순천에 모여 산업 클러스터를 이루고 지역의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글로벌 창작지대로 도약시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는 로커스와 케나즈 등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 48개 콘텐츠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현재 282명이 콘텐츠 제작과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광양, 청림·안전 시공 의지 다져

옥룡 추산 급경사지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최근 ‘옥룡 추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사 현장을 찾아 청림서한문을 전달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전달식은 각종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선9기 시정 철학인 ‘청렴과 공정’을 현장 중심에서부터 확고히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현 시장은 옥룡 추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 과정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 시공을 당부하는 한편, 금품·향응 수수 근절 및 부당한 요구 없는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에 담긴 청렴서한문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해위험지구 공사 현장에서 청렴서한문을 전달하며 안전한 시설물 시공과 행정·시



공사 간 투명한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함께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 도시 광양’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렴서한문 전달을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연중 추진하며 공직사회와 건설 현장의 청렴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탬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장흥, 폭염 대응체계 가동  
4개 사업 3억8000만원 투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최근 최근 폭염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축산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회진면 회진리 소재 오리 사육농가를 방문해 축사 환기상태, 냉방시설 운영, 급수관리, 사료 급여상황 등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농가는 축사 6동, 2557㎡ 규모에서 오리 1만35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군은 폭염 취약시간대 관리요령과 축사 내부 온도 저감 방안 등을 안내했다.

군은 현재 폭염 대응을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폭염예방시설 지원, 축사지붕 열차단재 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3억8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